



자녀사랑하기 2호 - 2017학년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학생들의 긍정적 성격특성과 정서·행동발달 경향성을 파악하고 지원하기 위한 검사입니다. 올해에도 전국의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4월에 실시합니다.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2017학년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 달라진 점과 학부모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궁금증을 풀어드리고자 합니다.

정서·행동특성검사 Q & A

1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무엇인가요?

- 신체발달의 정도는 신체검사를 통해서 확인하듯이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학생의 성격특성과 정서·행동발달의 정도를 파악하여 학생 교육 활동에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는 검사입니다. 학교는 검사결과에 따라 성장과정에서 흔히 경험하게 되는 인지·정서·사회성 발달과정의 어려움을 가진 학생들에게 빠르고 효과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책으로 2007년부터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를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 2017학년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서는 자녀의 성격적 강점에 대한 이해를 돕도록 작년에는 없었던 학생의 성격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영역이 새롭게 추가되었습니다.

2 학부모가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설문지에 답변한 것으로 관심균을 판정하는 것이 맞나요?

- 예, 맞습니다! 초등학생의 경우 부모님이 자녀의 검사에 답변한 결과를 토대로 평가합니다. 아이의 일상생활에 대해 부모님이 잘 아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부모님께 검사를 위한 설문 작성을 요청드립니다.
- 부모님 중 아이와 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시는 분께서 작성해 주시면 좋습니다. 주 양육자가 부모님이 아닐 경우(조부모님 등) 부모님보다는 주 양육자가 작성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3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대해 자녀와 어떻게 대화를 나누면 좋을까요?

❖ 성격특성 영역의 결과에 대해 자녀의 성격적 강점을 칭찬해주세요.

"00야,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00는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구나. 앞으로도 그런 좋은 마음 변치 않기를 바란다."

❖ 검사결과가 정상범위로 나왔을지라도 자녀의 학교생활과 최근의 고민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주세요. 검사결과가 관심범위에 해당되고 외부기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담임선생님의 의견이 있다면 조속한 도움을 받아 자녀가 다시 안정적인 정서행동발달을 이루도록 힘써주세요.

"00야,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고민이 생길 때는 언제라도 엄마(아빠)에게 알려주었으면 좋겠구나."

"00야, 그동안 너의 마음에 힘든 점이 있었는데도 엄마(아빠)가 몰라 준 것 같아 미안하구나. 하지만 지금이라도 네가 이렇게 힘들었다는 것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너를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엄마(아빠)도 최선을 다할게. 학교에서도 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도움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알려 주셨어. 너의 고민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전문적인 검사도 같이 받아보면 어떨겠니?"

4 우리 아이가 관심군 판정을 받았는데,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 일반적으로 전체 아동청소년의 약 5-10% 즉 100명중 5-10명이 정서행동 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서·행동특성검사는 총점 평균을 바탕으로 기준점수보다 높을 때 '관심군'으로 선정합니다. 그러나 이 검사가 정서 및 행동 상의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는 진단검사가 아니기에 검사결과에 따라 '관심군'으로 선정되었다고 하여 당장 무슨 문제가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점수가 높은 아이들 중에서도 실제로는 문제가 없는 아이들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만, 학생이 현재 집중력 저하, 충동조절의 어려움, 기분 저하, 스트레스 등을 경험할 가능성이 있기에 전문기관에서의 평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지속될 시에 학교 적응의 어려움, 대인관계 문제, 우울증 등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 정서·행동특성검사의 결과는 학교에서의 평가와 함께 고려되어야 합니다. 집에서는 괜찮다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어려움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담임선생님의 의견을 듣고 도움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해 함께 상의해야 합니다.

5 검사 결과가 아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까 걱정됩니다.

- 학교와 전문기관에서 이루어진 검사와 상담 자료는 외부에 공개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며 학생부와 건강기록부에도 남지 않아 아이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학교 내 담당 선생님(담임교사, 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등)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 학교에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건강을 지키고 한 단계 더 성장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 뉴스레터는 교육부가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에 의뢰하여 제작한 "자녀 사랑하기" 2호이며, 총 10회에 걸쳐 가정으로 보내드립니다.

2017년 3월 30일
전 주 효 림 초 등 학 교 장